

危險管理部 發足에 즈음하여

1987年 5月 1日자로 防災研究部를 危險管理部로 改編 調整함에 따라 그간 點檢實務部署에서 實施하여 오고있던 火保法上 地域外 大規模 産業體에 대한 危險調査業務 및 危險調査業務 總括을 危險管理部에서 擔當하게 되었다.

우리 協會에서 危險調査業務를 實施하게 된 것은 大形 特殊建物과, 火保法上 安全點檢 對象에서 除外된 大規模 産業體(주로 울산, 창원, 포항, 마산, 반월工團 所在)의 潛在危險 調査 및 消火, 避難, 延燒擴大 防止施設에 대한 安全點檢의 實施로 會員社 付保物件의 大形火災事故 豫防을 위한 協會의 自生的인 目的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保險産業의 國際化에 對備한 競爭體制 確立과 保險契約者에 대한 서비스 提供 및 損害率 輕減을 위한 損害保險會社의 損害防止 活動의 必要性에 對應하기 위하여 保有物件에 대한 危險管理 機能을 갖게 함으로써 海外保險市場 競爭力 強化를 促求한 財務部 業務指示(損害保險會社 危險管理 指示: 1980年 4月 6日, 損害保險會社 危險管理 制度改善 作業結果 活用 促求: 1981年 1月 31日)도 그 背景이 되었다.

이에 따라 點檢部署에서는 各 原保社 意見을 收斂하여 필요한 危險調査 報告書 樣式制定과 아울러 每年 事業으로 一定 規模 이상의 大規模 産業體에 대한 危險調査를 實施하고(1981年 이후 1,876件 實施) 그 結果를 해당 原保社의 保有決定에 필요한 資料로 活用토록 提供하여 왔다. 이와 並行하여 前 防災研究部에서는 國內實情에 알맞는 危險管理 技法을 開發하기 위하여 1985年, 1986年에 걸쳐 15件的 石油化學工場에 대해서 그간 研究한 EML(Estimated Maximum Loss) 評價方法을 適用하여 그 結果를 外國保險會社에 檢討依賴한 바 大部分 肯定的인 좋은 反應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이 危險管理業務 定着을 위하여 現 與件下에서 最善을 다 하고 있으나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財務部的 危險管理 指針이 示達된 후 原保社에서는 서둘러 自體 危險管理 팀을 構成하여 나름대로 專門 技術誌를 發刊하는 등의 活潑한 움직임을 보여 오고 있었으나 防災專門機關을 自處하는 協會에서 必要性은 認定하고 있었으나 여러가지 如意치 않은 與件으로 危險管理專擔部署 新設을 遲延시켜 왔던 점이다.

이제 協會에 危險管理專擔部署가 생긴 것은 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그간 實施하여 온 危險調査實績 및 EML 評價方法을 토대로 危險管理業務를 發展시켜 眞正한 意味에서의 原保社에 대한 保險技術 POOL 役割遂行으로 急變하는 周圍與件에 能動的으로 對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하여 技術部署 모든 職員의 積極的인 參與가 切實히 要求되고 있는 것이다.